

KIDS RUNNING · 5 회 차

키즈러닝 엄마 영차!

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찾자리.

이번에 함께 볼 한 편

AI 시대 자산격차, 고작 '이 차이'로 확 갈린다

뇌과학자 김대식 x 경제 전문가 오건영 · 지식인초대석 합석 EP.10

DATE

2026. 10. 14

수요일 오전 10:30

PLACE

카인드 오브 씬머 쇼룸

을지로3가

VIDEO

1시간 21분

핵심만 보면 7분 · 40:52부터

이번 자리를 한 줄로

지난 자리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길러줄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 집은 무엇으로 먹고살까요?”

AI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김대식 교수)와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오건영 단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뭘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의 답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버티는 힘”을, 한 사람은 “주인이 되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 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 “아무도 모릅니다.”

보고 올 영상 한 편

지식인초대석 합석 EP.10

AI 시대 자산격차, 고작 ‘이 차이’로 확 갈린다

출연 김대식 교수(뇌과학자) · 오건영 단장(거시경제) · 진행 한석준
지식인사이드 · 2026년 7월 11일 공개

youtu.be/nm20TC-L0hg 1시간 21분

보실 때 팁 · 1시간 21분, 깁니다. 설거지하면서 들어봐도 괜찮아요.

- 시간이 없으면 → **40:52부터 7분**. “우리 자녀 세대한텐 뭘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까”를 묻는 대목. **오늘의 핵심**입니다.
-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 **20:23부터 4분**. “나는 뭘 하지?”가 나오는 대목.
- 중간에 금리·물가 이야기(31:00~40:00)는 **어려우면 넘기셔도 됩니다**. 8쪽에 표 하나로 정리해 뒀어요.
- **못 보고 오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같이 짚어요.

📌 이 영상에 나오는 숫자와 전망은 **두 출연자의 말**입니다. 이 자료는 그 말을 옮긴 것이고, **투자를 권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진행자도 말합니다 — “저희가 예측한 것 중에 한 10%도 현실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0:41**

넉 달 사이에 달라진 것

두 사람은 넉 달 전(2월)에도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 꺼낸 첫 이야기가 “속도”입니다.

▶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01:45

오건영 단장이 꼽은 의외의 일 — **전쟁이 났는데도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 교과서대로라면 불안할 때는 투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이 AI 투자 레이싱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 오건영 · 02:36

게다가 하반기엔 공사비도, 반도체 값도, 에너지 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대표는 뭐라고 할까요? **“당겨서 빨리 하자.”** 03:05

🧐 키보드도 못 치던 분이 앱을 만들어 보냅니다 05:03

바이브 코딩 —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요즘 주변의 연세 지긋한 사업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키보드도 못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트북 컴퓨터를 샀는데 열지도 못하세요.

그런데도 하루 이틀 배우고 저한테 앱을 보내 주시는데 —

너무 자랑스럽게 **‘김 교수,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

— 김대식 · 05:32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고, 덕분에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 버렸고.” 05:51

💡 진행자 한석준 아나운서도 “저도 뭐 하나 해 봤어요”라고 말합니다. 코딩은 이제 **개발자만의 일이 아니라, 말할 줄 아는 사람 누구나의 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려주는 AI에서 해주는 AI로

김대식 교수가 “지난 넉 달 사이 가장 큰 변화”로 꼽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잘해서 내놓지 못한 AI 06:38

김대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한 AI 회사가 새 모델을 **공개만 하고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딩을 너무 잘했는데, “코딩을 잘한다는 건 거꾸로 해킹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30년 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1분쯤 만에 빈틈**을 찾았다고 합니다. 07:41
- 그래서 회사는 출시 대신, 문제가 발견된 기업들에게만 먼저 알려 **조용히 고치게** 했습니다. 08:20

“이건 마치 1945년 미국만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졌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 김대식 · 10:00

 여기서 가져갈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넉 달 사이에 이만큼 달라졌다는 것.

“생성형 AI 시대는 이제 끝났다” 13:35

끝났다는 건 **다 됐다**는 뜻입니다. AI가 만든 글·그림·영상이 사람 것과 큰 차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생성형 AI (2023~)	에이전틱 AI (지금)	피지컬 AI (곧)
하는 일	만들어 줍니다	대신 해줍니다	몸으로 합니다
예	글 · 그림 · 영상	비행기표를 찾고 결제까지	택배 나르는 로봇
어디서	화면 안	화면 안 (인터넷 세상)	우리 옆에서

“생성형 AI는 지금 와서 보면 살짝 **애들 장난** 수준이었던 거예요. 에이전틱 AI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 김대식 · 1:19:10

일자리가 흔들리면, 돈 걱정이 따라옵니다

여기서부터 경제를 보는 사람의 눈이 들어옵니다.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15:00

오건영 단장은 사회에 나올 때 누구나 꾸는 꿈부터 짚습니다 — “어떤 직업을 가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한 직업을 꽤 오래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를 이렇게 이어 봅니다. (본인도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요즘 다들 투자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

16:20

“시가 잘나가니까 거기 투자하자”도 있겠지만, 오건영 단장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서 얻어내는 소득도 있겠지만 **금융에서 얻어내는 소득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두려움.”

— 오건영

10~15년 전엔 은퇴·연금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형, 누나들이 은퇴하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그럼 바로 내 눈앞에 닥친 문제예요.”

 영상 제목은 “자산격차”지만, 출발점은 **일자리 걱정**입니다. 아이의 직업을 고민하는 마음과, 우리 집 살림을 걱정하는 마음이 **같은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의 절반은 이미 AI가 씁니다

“에이전트”가 일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김대식 교수가 그려 줍니다.

토큰 — AI가 일할 때 쓰는 단위 17:16

AI에게 일을 시키면 **토큰**이라는 단위로 계산됩니다. 일을 많이 시킬수록 많이 씁니다. 김대식 교수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화폐가 토큰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고 전합니다.

AI 모델은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 엔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누군가 써야** 돈이 됩니다. 17:47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19:01

작년까지 AI를 쓰는 건 **사람과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더해졌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본 자료로는, **올해 6월 처음으로 인터넷 사용량의 51%**를 AI가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잠을 안 자잖아요. 밥도 안 먹어요.** 이 친구들은 24시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산 잘 관리해 줘!’ 그다음부터 에이전트가 24시간 돌면서 시장을 조사하고 논문을 읽고,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하면서 사고팔고...**”

— 김대식 · 19:16

그래서 나오는 질문 20:23

“에너지가 있고, 토큰이 있고, 로봇이 만들고,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 **나는 뭘 하지?**”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분들이 계속 이 고민을 할 거라고, 김대식 교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다음 쪽이 그 이야기입니다.**

장보기도 AI가 하는 세상

영상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소비자'는 원래 없던 자리였습니다 20:36

중세에는 왕과 귀족이 모든 것을 가졌고, 스스로 벌고 쓰는 '소비자'라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그 자리를 만들었고, 지난 200년의 모든 장사는 기업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 200년 만에 손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21:33

지금까지	이제부터
기업 · 사람	기업 · 사람 · 에이전트
2 × 2	3 × 3

수능 보느라 바쁜 고등학생의 쇼핑 22:03

“그 고등학생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 ‘나는 수능 시험 보느라고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쇼핑해.’
그러면 컴퓨터를 파는 회사의 마케팅 타겟이 학생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에이전트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 김대식 · 22:24

그러면 파는 쪽도 에이전트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팔아 와라.” “잘 사 와라.” 22:55

“그럼 사람을 어디 있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일까 23:24

에이전트를 가진 회사, 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 다 합쳐도 “1%도 안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 영상 제목의 ‘자산격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

두 사람도 답을 내지 못합니다. 대신 질문을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 24:01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제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넘어 “**넉넉하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김대식 교수의 풀이 —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오건영 단장이 되물습니다. “**그 돈을 전 세계가 받느냐, 아니면 미국이 받느냐.**”

로봇에게 세금을? 28:26

에이전트는 일을 하고 토큰을 씁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냅니까?** 빌 게이츠가 10년 전에 말한 **로봇세**가 지금 와서 보면 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돈은 몇몇 회사가 벌고 문제는 사회 전체가 떠안으니, **그 차이만큼 세금으로 맞추자**는 생각도 소개됩니다. (공장이 돈을 벌고 공기는 모두가 마시니, 오염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원리 · 29:05)

다만 “모두가 모여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실업률은 그대로일까 24:26

“거시 경제라는 건 **경기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그냥 뛰어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덩치 좋은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잡아당기고 온갖 파울 다 하는데, **위에선 안 보이지 않습니까.**”

— 오건영 · 25:19

사무실 일이 편해진 건 숫자로 잘 안 잡힙니다. 하지만 — “택배를 사람이 한 시간에 몇 개 배달하는데 **로봇은 열 배를 한다. 그럼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죠.**” 김대식 · 26:35

오건영 단장이 역사에서 본 것 30:49

“제가 바라본 역사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이 나타날 때마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확대됐거든요.**”

돈의 날씨 어려우면 이 표만 보세요

영상 31분~40분, 오건영 단장이 칠판에 그린 그림입니다. 경제는 **성장**과 **물가** 두 가지로 네 칸이 됩니다. **35:02**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안정
성장이 강하다	2000년대 중국이 고속 성장하던 때	1990년대 — IT 혁명 ★ 많이 만드는데 값은 싸진다
성장이 약하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성장도 물가도 가라앉음

★ 가장 좋은 칸은 기술이 좋아질 때만 열립니다

36:25

사람이 만들면	로봇이 밤새 만들면
1,000원으로 10개 한 개에 100원	1,000원으로 100개 한 개에 10원

값이 싸지니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만들어야 하니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

🍂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37:00

1990년대 후반, 사람들이 알아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회사 주식은 사야지.”** 주가가 치솟고, 불어난 자산을 믿고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자 **거품이 꺼졌습니다.**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절과 같아요.” 오건영 · 39:47

📌 가져갈 것은 하나입니다. **AI가 좋은 계절을 가져와도, 계절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건영 단장은 한쪽으로 쓸렸다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거라고 봅니다. 1:04:00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뭘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의 심장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40:52**

대치동에서 들려온 이야기 **41:02**

김대식 교수가 “최근에 듣기로는”이라며 전한 이야기입니다 —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국·영·수 학원에서 빼서 예체능 학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

이유는 지난 3월에 나온 한 보고서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눠 봤더니 —

대신할 수 있는 일	아직 대신 못 하는 일
비즈니스 · 금융 · IT · 법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 · 배관 같은 현장 일 (로봇이 오면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임)

“에이전틱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의 교집합은 —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대체가 되는 거죠.”

— 41:42

판교에서 역대 연봉을 받던 개발자가 바이트 코딩 때문에 이미 해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41:58

그런데 교수의 답은 **42:15**

“모두가 예체능 할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이나 방송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아실까, 저거를.**”

— 김대식 · 42:29

정글에 떨어진다면 무엇을 챙길까

“모른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를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콜럼버스 3년 뒤, 두 사업가 43:09

신대륙이 발견되고 3년. 온갖 소문이 돌니다. 한 사업가는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합니다. 다른 사업가는 **우선 먼저 가 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날씨 43:37

“제가 일기예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내일 날씨가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하면 70~80% 맞아요.
단, 내일 태풍이 불면 100% 틀립니다.”

인류가 등장한 지 30만 년, **늘 사람이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 자리를 넘겨주는 걸 겪는 첫 세대가 우리라는 것. 44:02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44:32

그래서 남겨 줄 것은 44:41

**“적응력, 도전 정신, 회복 탄력성.
메타인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셋을 누군가 납치해서 아마존 정글에 던져 놓았다고 칩시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유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 힘들어도 울지 않는 능력. 버티는 능력.** 그
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능력.**”
— 김대식 · 45:07

드론 학원 이야기 45:17

누군가 “드론 조종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들 드론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가 보니 **에이전트가 드론을 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되고” — 좌절하거나, 눈에 보이는데도 버티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것.

 **넘어져도 다시 뛰는 것, 힘들어도 끝까지 가 보는 것.** 우리가 아이들과 달리면서 매번 연습하는 그것입니다.

경제학자의 답 — 갈아타는 힘, 주인이 되는 법

같은 질문에 오건영 단장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45:52**

① 빠르게 놓고, 옮겨 타는 능력

45:52

“여태까지는 어떤 전공이라든지 어떤 과목을 **깊게 파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되게 **빠르게 포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능력**도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는 능력.”

쓰던 AI를 금방 다른 것으로 갈아타듯, **직업을 바꾸는 일**도 앞으로는 흔해질 거라고 봅니다.

② 적응으로도 안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46:23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분야에 탑이 될 순 없고, 양극화가 된 사회에서는 탑이 된 기업이나 탑이 된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 미래에는 금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따라갈 방법이 없다면,
금융의 주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46:47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인(주주)**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

“‘미국은 다 가졌네. 부럽다.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주라는.”

— 오건영 · 47:04

 영상 제목의 ‘**이 차이**’는 여기입니다. **일해서 버는 사람**과 **주인으로도 버는 사람**의 차이.
무엇을 사라는 이야기는 영상에 없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해마다 바뀐 “이것만 하면 살아남는다”

김대식 교수가 손가락으로 꼽은 목록입니다. 47:31

해	그때 다들 한 말	김대식 교수의 한마디
2023	프롬프트(질문)를 잘해야 한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24	AI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2025	바이브 코딩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2026	에이전트를 많이 돌리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 지금

해마다 정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올해의 정답을 외우는 건 답이 아닙니다.

🧐 교수님의 고백

48:05

“이 긴 녹화를 하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제 컴퓨터에 쌓이고 있어요.

저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맨날 에이전트 얘기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전트가 사실 없습니다.”

— 김대식

다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거는 6개월 후면 다 바뀔 겁니다. 아니면 늦어도 1년 후에는.” 48:11

우리의 분신처럼, 우리 일을 동시에 해 주는 에이전트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 AI를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책만 읽는 사업가가 아니라 **먼저 가 보는 사업가** 쪽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미 그림이 그려진 종이

“AI가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에 대한 오건영 단장의 답입니다.

“깨끗한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 오건영 · 57:52

이미 그려진 것	무슨 뜻인가
양극화	이미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빚이 많다
블록화	나라들이 편을 갈라 기술을 나누지 않는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오려면

58:15

“그런 AI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중국과 나눌 것인가?” — 진행자의 답은 **“절대 안 하죠.”**

그러자 깨달음이 옵니다. **유토피아가 오려면 그 기술을 전 세계에 나눠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

기술과 에너지

57:10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없다
기술이 있다	둘 다 가진 나라가 가장 강하다	한국 · 일본 · 대만
기술이 없다	앞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힘들다

김대식 교수는 길게 보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55:53

좋은 아이디어는 AI 덕에 값이 0에 가까워지지만, **에너지는 쓸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는 희망

51:45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악수하고 공조를 하는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 오건영

가볍게 읽으세요 영상 뒤쪽 20분

뇌와 로봇, 그리고 “AI에게도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 “오른손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1:07:03

“우리는 몸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언어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인간 능력의 99%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 김대식 · 1:07:36

뇌에 칩을 심어 생각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 이야기 끝에 나온 말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13:25

(몸으로 아는 것은 말로 옮기기 어렵다 — 4회차의 “바디 스킬”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 사람이 0명인 회사

1:16:33

실리콘밸리의 목표는 1인 창업이 아니라 ‘**0인 창업**’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혼자 **100만 달러**를 벌면 지능이 있다고 본다는 기준도 소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능이 없는 거예요.**” (웃음)

🐱 “개가 정말 고양이를 그리고 싶을까요?”

1:17:43

집에서 AI에게 “고양이 그려 줘”를 자주 시킨다는 김대식 교수. “**우리는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 아이와 나눠 볼 만한 질문입니다.

🏠 5년 뒤 횡단보도, 10년 뒤 우리 집

1:19:38

“5년 정도 후면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옆에 택배 배송하는 휴머노이드가 서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가정집마다 TV와 세탁기가 있는 것같이 휴머노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대식

1970년대 초, 한 유명 컴퓨터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평범한 가정집에 컴퓨터가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지금은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1:20:08

SUMMARY

한 장으로 정리

두 사람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다르게 답했는지 나란히 놓아 봅니다.

질문	김대식 (뇌과학자)	오건영 (경제)
지금 무슨 일이?	그려주는 AI가 끝나고 해주는 AI 가 시작	전쟁 중에도 AI 투자는 멈추지 않음
무엇이 걱정인가	사람이 설 자리 "그럼 사람은 어디 있어?"	양극화 기술이 뿔 때마다 벌어졌다
정답이 있나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는 계절처럼 돈다
아이에게 남길 것	적응력 · 회복 탄력성 · 메타인지	옳게 타는 능력
우리 집이 할 일	책만 읽지 말고 먼저 가 보기	주인(주주)이 되는 생각

두 사람 다 **"무슨 과목"**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을,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에서 주인으로 가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지난 자리와 이어 보면

	4회차 · 최태원	5회차 · 김대식 × 오건영
AI의 다음	물어보는 AI → 시키는 AI	그려주는 AI → 해주는 AI → 몸을 가진 AI
기를 것	네 가지 근육 중 적응의 근육	적응력 · 버티는 능력
직업	하나에 매몰되지 말 것 · 멀티잡	깊게 파기보다 옳게 타기
새로 나온 것	—	돈 이야기 — 일해서 버는 것과 주인으로 버는 것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적응)**를 꺼냈습니다. 두 번 겹치는 말은 한 번 더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낯선 단어 미리보기

가볍게 훑고 가시면 영상이 훨씬 편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생성형 AI	글·그림·영상을 만들어 주는 AI. 지금 우리가 쓰는 ChatGPT 같은 것.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시키면 결제까지 직접 해주는 AI. 비서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피지컬 AI	화면 속이 아니라 몸을 가진 AI. 로봇·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 로봇.
바이트 코딩	컴퓨터 언어 대신 평소 쓰는 말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토큰	AI가 일할 때 쓰는 계산 단위 .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듭니다.
데이터센터	AI를 돌리는 커다란 컴퓨터 창고 . 전기를 아주 많이 씁니다.
A2A	에이전트끼리 사고파는 것. 사는 쪽도 파는 쪽도 AI.
기본소득	일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주는 돈.
로봇세 · 토큰세	사람 대신 일하는 AI에게 매기자는 세금.
양극화	가진 쪽과 못 가진 쪽이 점점 벌어지는 것.
블록화	나라들이 편을 갈라 따로 가는 것.
생산성	같은 돈과 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만드나 .
회복 탄력성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 영상에서는 “리질리언스”라고도 합니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것.
주주	주식을 가진 사람.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 .

오늘 차를 따라가며 나눌 이야기

차 네 잔의 흐름을 따라 대화도 깊어집니다. (향기 → 탐색 → 확장 → 회고)

1 첫 잔 · 향기 마음이 먼저

- 영상을 보고 **무서웠나요, 후련했나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 “아무도 모릅니다”라는 전문가의 말 — **위로가 됐나요, 더 불안해졌나요?**
- 대치동에서 국영수를 빼고 예체능으로 옮긴다는 이야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나요?**

2 둘째 잔 · 탐색 머리로 들어가서

-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대체된다.”** 내가 아이에게 바랐던 직업은 어느 쪽에 있나요?
- 수능 보느라 바빠서 **쇼핑을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고등학생.** 편리해 보이나요, 쓸쓸해 보이나요?
- **“그럼 사람은 어디 있어?”** — 이 질문에 나라면 뭐라고 답할까요?
- 해마다 바뀐 정답(프롬프트 → 도구 → 코딩 → 에이전트). **나는 그중 무엇을 따라가 봤나요?**

셋째 잔부터는 우리 집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내려옵니다.

3 셋째 잔 · 확장 우리 집으로

- 책을 읽는 사업가와 먼저 가 보는 사업가. 나는 어느 쪽이고,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인가요?
- “힘들어도 울지 않는 능력, 버티는 능력.” 우리 아이는 이걸 어디에서 배우고 있나요?
- 드론 학원에 보냈는데 드론을 시가 몬다면 — 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 줄까요?
- 우리 집에서 돈 이야기를 아이와 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인이 된다’는 걸 아이 말로 설명한다면?

4 넷째 잔 · 회고 나에게로

- 나에게도 “깊게 파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옮겨 탄 적이 있나요?
- 김대식 교수도 “저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나요?
- 이번 달에 ‘먼저 가 보기’로 하나만 해 본다면?
- 오늘 집에 가서 아이에게 던질 질문 한 문장을 정한다면?

아이랑 나눌 이야기 집에 가서

같이 드린 **아이용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요. (수채화 7컷 · 장마다 질문 하나)

컷	장면	아이에게
1	그림을 그려 주는 로봇	“로봇이 그린 그림이랑 네가 그린 그림, 뭐가 달라?”
2	장바구니를 든 로봇 둘이 가게에서 만남	“로봇한테 심부름 보내면 넌 그동안 뭐 할래?”
3	잠든 마을, 혼자 일하는 로봇	“잠도 안 자고 일하면 좋을까, 힘들까?”
4	배에 먼저 올라타는 아이와 책 읽는 아이	“넌 먼저 가 보는 편이야, 알아보고 가는 편이야?”
5	정글에서 길을 찾는 아이들	“처음 가 본 곳에서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6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아이	“울고 싶었는데 끝까지 한 적 있어?”
7	작은 나무를 심고 물 주는 아이	“네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건 뭐야?”

집에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 “로봇한테 뭐든 시킬 수 있으면 뭘 시킬래?” → 대답을 듣고 “그럼 너는 그동안 뭐 할 거야?”로 이어가면 성공입니다.
- “AI한테 고양이 그려 달라고 하면, 개는 그리고 싶을까?” → 아이 대답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 “아무도 안 가 본 곳에 가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 영상 속 교수님 답은 “울지 않고 버티는 힘”이었어요.
- “배우던 게 갑자기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할래?” → 정답 없이 들어만 주세요.
- “가게 주인이 된다는 건 뭘까?” → 일하는 것과 주인인 것의 차이를 아이 말로.



정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영상 속 두 전문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 “아무도 모릅니다.”

TAKEAWAY

**“그 어떤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
힘들어도 울지 않는 능력.
버티는 능력.”**

뇌과학자는 **버티는 힘**을 말했고, 경제학자는 **주인이 되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둘 다 학원 시간표에는 없는 과목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하는 사람보다
우선 가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이미 **가 보는** 쪽입니다. 영차. 🍲

다음 자리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문의 · 알림 : Instagram @kids_running_kr DM

본 자료는 참석자 학습용입니다. 외부 공유 · 재배포를 삼가 주세요.

영상 속 전망은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며, 이 자료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 2026 Kids Running